

농촌 지역 공동화 현상에 따른 활성화 방안 연구

사회적 농업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Activation Plan of Rural Area

Focusing on social agriculture

주 저 자 : 박재현 (Park, Jae Hyun)

광운대학교

pjh@mrb.co.kr

Abstract

We are currently a large city with a population that is rapidly becoming hollow. Declining rural population and aging are becoming the biggest problems that local governments should overcome. The first purpose of agricultural production in urban areas, which migrates to rural areas, is to have a lot of labor. However, even if the same products are produced, the importance of derivative services that can be evaluated for high added value by improvement of quality and exploitation of sales channels is getting more attention. As a solution to this problem, there are already a lot of service industries that can return to the agriculture through the 6th industry as the future industry. In rural areas, the rural community represented by the revitalization plan of the declining area, and the experience village represented by social agriculture, the necessity of the labor population is identified, As well as ways to increase the resident population by inducing the influx of people directly contributing to the local economy.

Keyword

Sixth Industry (6차산업), Social Farming (사회적 농업), 농촌지역 공동화, 농촌인구 감소

요약

우리나라는 현재 대도시로 인구가 편중되며 농촌의 공동화 현상이 급격히 진행되고 있다. 농촌 인구의 감소와 노령화가 지방자치단체마다 극복해야 할 최대의 고민이 되고 있다. 도시지역의 인구가 농촌 지역으로 이주하는, 첫 번째 목적인 농업 생산은 많은 노동력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같은 생산물을 두고도 품질의 개선과 판로의 개척 등에 의해 높은 부가가치를 평가받을 수 있는 파생 서비스의 중요성은 더욱 주목받고 있다. 이에 대한 방안으로 미래 산업으로써, 6차산업을 통한 농업으로의 회귀와 접목을 할 수 있는 서비스업들이 이미 많이 언급되고 있다. 농촌 지역, 쇠퇴지역의 활성화 방안으로 대표되는 농촌 지역 공동체, 사회적 농업으로 대표되는 체험마을을 중심으로 노동인구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연령대 구분없이 활동할 수 있는 농촌의 서비스 산업을 사례로 방문 인구의 증가는 물론, 지역 경제에 직접 보탬이 되는 유입 인구의 유도로 거주 인구를 늘릴 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목차

1. 서론

- 1-1. 연구 배경 및 목적
- 1-2. 연구 방법 및 내용

2. 이론적 고찰

- 2-1. 사회적 농업 공동체
- 2-2. 전문 인력의 필요성
- 2-3.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3. 현황과 중요성

- 3-1. 체험 마을 현황

3-2. 청년실업, 구인 구직

3-3. 농촌 지역 활성화 방안

4. 결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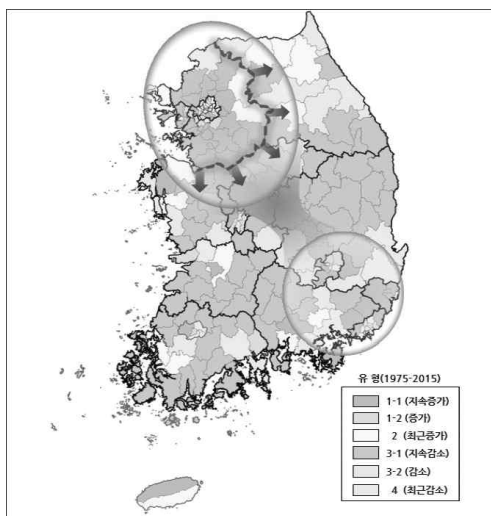
참고문헌

1. 서론

1-1. 연구 배경 및 목적

급격한 속도로 이루어진 산업화에 따라 대도시로 인구가 편중되는 우리나라 농촌의 공동화 현상은 이미 오래전부터 사회적 논쟁거리가 되어왔고, 농촌 인구의 감소에 따른 노령화 현상 역시 시간이 흐를수록 지역마다, 지방자치단체마다 극복해야 할 최대의 고민이 되었다.¹⁾

정부의 국토연구원 자료에 의하면 2017년 현재, 우리나라의 인구는 이전과 비교하면 점점 줄어들고 있지만, 오히려 대도시와 그 주변의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의외성이 보인다.²⁾ 우리나라 국토에서 공간상의 인구 불균형 현상이 심화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1] 인구분포의 공간적 양극화

출처 : 인구 및 국토 공간구조 변화 전망과 대응방향, KRIHS 국토연구원.

[그림 1]의 유형 분류를 살펴보면 ‘감소’와 ‘지속감소’, ‘최근 감소’가 행정구역상의 도시를 비켜 농촌 지역에 분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를 통해 농촌의 공동화 현상이 더욱 심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1) 김중훈, <인구는 줄고 도시집중은 가속, 국토 인구 불균형 갈수록 심화>, 경향신문, 2018.11.21., 검색 2019.01.14.

2) 민성희, 변필성, 김선희 외, <인구 및 국토 공간구조 변화 전망과 대응방향>, 국토연구원, 2017.12.31.

인구이동에 기인하지만, 인구감소와 고령화 등으로 쇠퇴하고 있는 농촌 지역과 지방 중소도시까지의 공동화 문제, 저 이용 및 미이용 토지의 증가로 인한 비효율적 토지이용 문제의 해결을 위한 공간 활용 문제까지 대두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농촌 지역, 쇠퇴지역의 활성화 방안으로 대표되는 농촌 지역 공동체, 사회적 농업을 중심으로 방문 인구의 증가는 물론, 지역 경제에 직접 보탬이 되는 유입 인구의 유도로 거주 인구를 늘릴 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영농조합법인 등의 여러 가지 형태로 운영할 수 있는 사회적 농업 중에서도 많은 인력을 운용할 수 있는 사회적 농업의 활성화가 귀농을 장려하는 농산물의 생산에 치중해 농업 인구의 유입을 유도하는 방법보다 농촌 인구의 유입에 더욱 효율적일 것이라는 결과 예측을 두고, 지역 특성에 들어맞는 농촌 지역의 활성화 방안을 확인하고자 한다.

1-2. 연구 방법 및 내용

최근에는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관내의 농업인구들이 모인 공동체의 생산 활성화를 위해 투자를 독려하고 있다.³⁾ 특히 전문성과 지속성이 모자란 농업인, 개인의 생산, 포장방식보다 이러한 소규모의 영농 인구들이 모여 농업생산물의 가공과 포장, 판로 개척까지를 체계화된 교육 때문에 공동으로 모색하는 방식이 홀로 고민할 때보다 효율적이라는 것은 이미 선행 연구를 통해 잘 알려진 바 있다.⁴⁾

이런 지방자치단체들의 자체적 노력은 물론, 중앙 정부 역시 농촌의 융복합산업을 육성하고 농촌관광을 활성화하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농가 실질소득을 증대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지속하여 온 농산물의 생산 중심 구조에서 농산물 가공 등을 통해 실질 부가가치를 올리는 방법도 여러모로 모색되어 왔고, 관광 콘텐츠의 개발과 홍보 등을 통해 농촌 활성화에 도움을 주는 정책을 장려하고 있다.

김중훈, 농식품부 차관보(2017)는 농촌 경제의 활

3) 황재홍, <거제시‘알로에팜영농조합법인’, 「2018농촌융복합산업 우수사례 경진대회」장려 수상, 경상남도농업자원관리원, <https://www.gyeongnam.go.kr>, 2018.11.01., 검색 2019.01.14.

4) 이승환, 홍연용, <농특산물 포장디자인에 대한 농업인 의식 분석>, 한국디자인문화학회, 2018. 24권, 3호, pp. 477-484.

성화 정책에 관해 전문가들과의 좌담회 자리에서,

“농촌의 생태가치, 여가휴양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국민의 삶터, 일터, 쉼터로서의 농촌 조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에 정부는 ‘누구나 살고 싶은 복지 농촌 조성’을 비전으로, 주민 체감형 지역개발과 농촌 주민의 복지 향상, 농촌 융복합산업 육성, 농촌관광 활성화 등을 핵심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⁵⁾ 변화를 반영한 정부의 농촌관광산업의 미래 정책 시행에 대해 정확히 밝히고 있다.⁵⁾ 또한, 농촌 경제 활성화를 표방하며 우후죽순으로 생겨나 한계에 이르렀다고 생각되는 ‘농촌관광’의 해결책으로는 농촌관광 사업에 참여하는 인력의 분업화를 제시하며 일반농업인의 새로운 교육을 통해 고부가가치의 사업현장에 투입하는 방법보다는 외부의 전문 인력과 농업인의 역할을 분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하고 있다.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 최근의 농촌 지역 공동화 현상에 농촌 인구로의 유입을 위해서 유입 가능성을 염두에 둔 잠재인력, 즉 도심 인구를 중심으로 농촌 지방자치단체와 도심 잠재인력 상호간 필요성을 확인하기로 한다. 사회적 농업으로 중앙 정부를 포함한 행정기관, 즉 지방자치단체까지의 관계를 충족시킬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경기도 양평에서 사례를 확인할 수 있는 ‘고론영농조합법인’의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양평군에서의 사회적 농업, 성과를 확인해 그 중요도를 확인한다.

2. 이론적 고찰

2-1. 사회적 농업 공동체

도심을 벗어나 자연환경에서 뛰놀고자 하는 어린이들과 청소년, 또 정신적 피로를 해소하고자 여가와 휴양을 원하는 성인들까지 광범위한 연령층을 소비자로서 삼는 체험 마을은 농촌 관광 사업으로 잘 알려져 있다.

특히 2000년대 접어들면서 초급 학교의 인성 교육 강화 방안의 하나로 현장학습, 체험학습이 장려, 보편화 되면서 학교별 농촌체험 학습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학교가 위치한 도시 근교의 농촌을 물색해야 했고, 많은 인원의 학생들을 인솔, 교육할 수 있는 인력과 시설은 필수적으로 필요했다.⁶⁾ 물론, 학교 입장에서는

단순히 자연을 접하는 환경적 면에서의 체험학습 외에도 학생들에게 농촌사회에서의 식생활을 포함한 생활습관이나 모내기, 벼 베기와 같은 절기에 따른 농업에 관련된 체험들이 더욱 효용 있게 느껴졌다.

초기, 마을 주민 수 명이 모여 모내기 시범을 보이면서 어린 학생들이 직접 발목을 걷어붙이고 논흙을 밟아가며 체험할 수 있도록 체험 마을의 모양을 갖추기 시작한 경기도 양평군 청운면의 ‘양평원조외갓집체험마을’은 2003년 ‘고론영농조합법인’ 사업자 등록을 하며 정식으로 사회적 농업의 기틀을 갖춘다.⁷⁾



[그림 2] 양평원조외갓집체험마을, 체험마을지도사 이모들

출처 : 고론영농조합법인, ‘양평원조외갓집체험마을’

물론 지리적으로 서울, 수도권에서 접근이 쉽다는 장점도 많이 주목 받았겠지만 지역마다 ‘사회적 농업 공동체’를 표방하며 생겨난 수많은 체험 마을들이 곳곳에 있어 있음에도 인천광역시를 비롯한 많은 서부 끝자락에 있는 학교와 단체들이 굳이 강원도에 인접할 정도의 먼 거리, 동부 지역의 청운면을 찾는다고 체험 마을의 농촌체험이 절실하다고 생각이 들지 않는

5) 박정민, <체험 위주 ‘농촌관광’한계...고급화, 콘텐츠 다양화로 도약해야>, 문화일보, 2017.12.01., 검색 2019.02.07.

6) 박중현, <초등생 학부모 “아이숙제 돕느라 인터넷 해매요”>, 동아일보, 2000.06.27., 검색 2019.02.10.

7) 고론영농조합법인, ‘양평원조외갓집체험마을’, 경기도 양평군 청운면 신문로 279

강원도 지역의 농촌 지역 학교, 단체에서도 이곳을 찾는 이유에서 '양평원조외갓집체험마을' 그들만의 차별화된 서비스가 있다고 추론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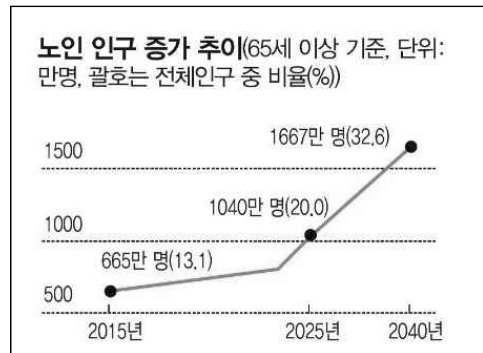
2-2. 전문 인력의 필요성

체험 별 장소의 이동이 잦은 체험학습의 특성상 많은 인원을 인솔하면서 안전을 위해 전문성을 갖춰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물론 유치원과 초급 학교의 경우, 학교 단체에서 담임선생님과 직접 선임한 지도부장 선생님 등 인솔 교사들이 동행하는 것이 일반적이긴 하지만 여러 학급이 함께 방문한 경우 학생의 수가 많아 그들의 안전을 위해 더 많은 인력이 필요하고, 제대로 된 올바른 안전교육 또한 절실했다. 농촌에 거주하는 일반 농민, 주민들이 학생들의 안전교육을 위해 각급 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안전교육을 이수하고 체험지도사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는 있었지만 불시에 발생하는 학교 단위, 단체 여행에서의 안전사고들은 학부모들의 많은 염려 속에서 정책적으로는 잠시 현장학습 자체를 금할 정도로 인솔하는 학교, 단체의 많은 부담이 되었다. 이 시기에는 실제로 체험 마을 내에서의 이동을 위한 탑승기구들도 전복의 위험이 있다며 행정기관의 지시 때문에 모두 운행이 정지될 정도로 모두 안전에 대해 민감하기도 했다.⁸⁾

안전에 대해 더욱 주의를 기울이게 된 만큼 안전 수칙 준수, 교육을 위한 전문 인력의 필요성이 절실했고, 활동의 안전 못지않게 먹거리의 안전에도 더욱 주의가 필요했다. 실제로 농촌에서 농산물 위주의 생산 활동으로 이어지는 영농조합법인의 경우, 사업자의 거의 모든 항목이 면세에 해당하여 면세 사업자의 형태로 운영되었으나, 단체의 점심 식사 공급을 위해 운영되는 식당은 별도의 음식업 사업자를 내고 허가받아 운영되고 있다. 외갓집 할머니의 손맛과 같으며 정감 어린 요소를 강점으로 옛 추억을 표방해 내주던 음식들은 이제 위생검사를 꼭 받아야 하는 음식업의 형태를 갖추게 되었고, 이로 인해 주방의 인력 역시 지역보건소의 검진에 의한 식품 위생 보건증을 발급받지 못하면 주방의 조리 업무에 종사할 수 없게 된 것이다. 농사일에 경험 많은 농민들이 노련한 자세로 학생들 앞에서 시범을 보이고 이를 따라 하는 외갓집체험마을의 체험지도사는 이제 안전 부문에서나 위생, 보건 등의 부문에서 전문성을 갖춘 새로운 인력이 필요하게 되었다.

2-3.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에서 농촌 공동화 현상과 인구 불균형 현상의 심화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고민을 확인했다. 실제로 공동화 현상은 농촌뿐만이 아니라 도심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현상으로 서울과 비교해서 신도시의 주택 구매비용이 낮고 교통비용이 저렴한 경우 주거비용이 저렴하다는 장점으로 거주 인구가 유지되었지만 그렇지 못하다면 도심으로 다시 화귀하는 인구가 늘어 신도시 역시 공동화 현상을 보일 수 있다. 또 신도시가 활성화된 후, 자족 기능이 부족할 경우 나타날 수도 있다. 우리나라의 수원 지역은 수원 광교를 근거로 둔 삼성전자(수원)가 있어 서울의준도가 낮은 편이나 만일 삼성계열 공장의 고용인구가 감소할 경우 부득이 신도시 주택공급 때문에 유입된 인구가 빠져나가면서 공동화가 진행될 수 있다.



[그림 3] 초고령사회 진입 2026년 (20.8%) 전망

출처 : 통계청

그러나 이와는 또 다른 현상으로 농촌 지역의 인구 이동에 따른 인구감소와 고령화 현상은 공동화(空洞化)라는 말을 실감케 하고 있다. 이는 여느 예와 달리 급격히 빠른 속도로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하고 있다는 우리나라의 사회현상이 보이는 결과이기도 하다. 고용 인구를 늘릴만한 생산성 직업군이나 시설을 갖추지 못하고, 자족 기능이 부족한 농촌 지역은 이런 공동화 현상에 대한 대책이 시급해 졌다. 다음 [그림 4]는 양평군청이 발표한 양평군내의 농촌체험, 휴양마을의 방문객 수와 매출액을 나타내고 있다.

2017년 방문객 수 468,571명 매출액 107억원을 보여주고 있는데, 경기도의 지원을 받아 직접 운영하는 기관 시설 '세미원'을 제외한 양평군내, '양평원조외갓집 체험마을'이 민간시설에서 1위의 실적을 보이고 있는

8) 신민정, <사고 났다 하면 일단 '금지'부터 하고 보는 교육부>, 한겨레신문, 2018.12.20., 검색 2019.02.10.

성과 지표(단위)	지표 유형	가중치	실적 및 목표치					측정 산식 또는 측정 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구분	'16	'17	'18	'19			'20
농촌체험·휴양마을 방문 객 수(명)	핵심	50	목표	456,283	468,571	450,182	477,417	501,287	당해연도 농촌체험·휴양마을 방문객 수	농촌체험마을 관리시스템(rucos)자료추출+시스템 미입력자료는 별도조사하여 통합작성
			실적	447,409	468,571					
농촌체험·휴양마을 매출 (백만원)	핵심	50	목표	113	107	107	108	109	당해연도 농촌체험·휴양마을 매출액	농촌체험마을 관리시스템(rucos)자료추출+시스템 미입력자료는 별도조사하여 통합작성
			실적	106	107					

[그림 4] 농촌체험, 휴양마을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

출처 : 2018 양평군청 성과계획서

점을 통해 '양평원조외갓집체험마을'의 대략적 매출액 규모를 추정해 볼 수 있다.⁹⁾

오랜 기간 지방자치단체 마다 농가 인구 유입을 위해 지원정책을 늘려 도시에서 농촌으로의 이주를 적극 홍보하기도 했지만 어렵사리 귀농한 세대가 제대로 정착하지 못해 역귀농하고 있다는 보도를 접할 수 있다.¹⁰⁾ 가장 큰 경험담은 아무 정보없이 오랜 시간을 비롯, 많은 노력이 들뿐아니라 전문성까지 갖춰야 하는 특용작물 재배에 뛰어들어 초보 농민들이 겪는 실수이다. 더군다나 초보 농민이 경험이 중시되는 농업의 특성상 주변의 도움없이 처음 접하는 농작물의 재배로 처음부터 큰 수확을 기대하기는 힘들었고, 교육 지원등의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에도 귀농 가계(家計)의 어려움은 누적되기 시작했고 역(逆)귀농이라는 삶의 터전을 바꾸는 어려운 선택을 다시 겪게 된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에서 이런 현상은 고령화에 의한 지역의 인구감소가 더욱 빠르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새생명의 출산 방법등으로 인구가 늘어날 기회마저 잃게 된 것이고, 이 주 인구가 안정된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적절한 자족 기능을 갖추는 일이 더욱 시급하게 되었다.

3. 현황과 중요성

3-1. 체험마을 현황

2-1. 사회적 농업 공동체의 예로 든 '양평원조외갓집체험마을'은 마을 주민들을 중심으로 모인 '고령영농조합법인'을 운영주체로 하고 있다.

조합원의 투표에의해 4년 임기의 대표와 이사진을 선출하고 이들은 시설, 인력을 포함한 전체적인 운영과 영업에 해당하는 고객 응대, 일정관리를 전담하고 있다. 흡사 기업의 조직체계로 운영되는 모습을 엿볼 수 있는데, 대표 이사진(理事陳)을 제외한 조합원은 체험방문객들의 체험을 돕는 체험지도사로 '이모'와 '삼촌'으로 지칭된다. 좀 더 고령의 인력은 각자의 역량에 맞게 식사를 준비하는 주방의 '할머니' 인력이 되기도 하고 화롯불이나 도구들을 필요한 곳에 공급하는 도우미 '할아버지'의 역할 까지 외갓집 정서를 바탕에 한 명칭으로 제 할 일을 하고 있는 모습이다.

고령영농조합법인은 2003년 설립 당시, 총 44명의 마을 주민 중, 38명이 참여했고 2019년 1월 현재, 26명의 조합원이 구성원이다. 이 역시 고령의 마을주민들이 많아 점점 더 줄어드는 추세인데 젊은 인력의 참여가 없어 걱정이라는 대표이사의 직접 인터뷰가 있었다. 서울의 초, 중, 고를 포함한 학교는 물론 유치원과 어린이집, 그리고 이들과 비슷한 성격의 학원이 단체 방문객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가족여행객과 협회, 단체 등 사실 기관들도 이들의 주요 고객들이다. 이 뿐 아니라 '경인지방통계청'과 같은 정부 기관도 해마다 이곳 고령영농조합법인, '양평원조외갓집체험마을'에서 지

9) <2018년도 성과계획서>, 양평군청, <http://www.ye21.net>

10) 안관옥, <농촌 10집 중 1곳 귀농 가구. 30%는 역귀농>, 한겨레신문, 2014.11.04., 검색 2019.02.11.

역주민을 돕기 위한 김장 담그기 행사를 진행하고 많은 김치와 쌀등을 각 부서마다 위치해 있는 지역의 주민들을 돕기 위해 사용하고 있다. 여기에 강원지역의 학교, 단체는 물론 인천지역의 학교, 단체까지 이동거리가 먼 지역에서도 방문객들이 늘어 이에 따른 인력 충원이 더욱 절실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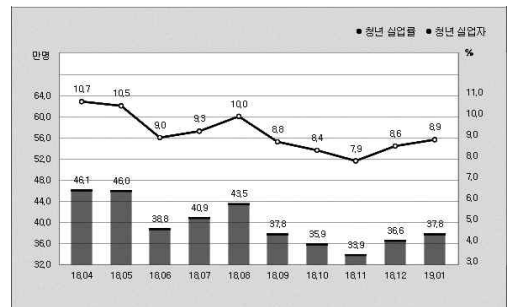
[그림 5] 경인지방통계청 직원들의 김장나누기 행사

출처 : 고령영농조합법인, 양평원조외갓집체험마을

실제로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고령영농조합법인의 정식 조합원 외에도 많은 마을 주민들이 체험지도사로 참여하고 있었는데, 그 중 일부는 귀농 인구라 확인되었다. 이렇게 마을에 거주하는 귀농인구의 우선 참여는 물론이고 성수기에는 ‘양평원조외갓집체험마을’이 위치한 양평군 청운면 신론리 인근의 ‘용두리’, ‘다대리’, ‘여물리’, ‘단원리’ 등 많은 지역주민들이 대거 고용 되기도 한다.

3-2. 청년실업, 구인 구직

농촌까지 거론할 것도 없이 대도시에서조차 고용의 부족현상이 문제가 되고 있다. 반면에 사회활동 경험은 많은 중장년층은 물론이고 이제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도 일자리가 없어 취업을 하지 못해 시급제 아르바이트로 영위하는 것이 일상이 되는 듯한 모습도 확인할 수 있다. 최근에는 도시에서의 반복되는 일상에 지친 사람들이 웰빙, 힐링의 의미를 부여하며 삶의 질을 되찾고자 하는 노력에 많이 치중하고 있기도 하다. 이제는 청년과 장년의 경계도 허물어진 듯 누구라 할 것 없이 직업을 선택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고 그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들이 강구책을 마련하려 나섰다.



[그림 6] 청년 실업률 8.9%, 청년 실업자 37만 8천 명

출처 : 통계청 KOSIS '19.01.

도시에서의 일자리 부족 현상의 돌파구로, 농촌의 공동화 현상 대책으로 귀농을 장려했으나 경험이 없는 귀농 가구가 소득을 올리며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는 보장은 없었다. 2-3.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에서 보았듯이 이런 귀농인구를 위해 많은 지원과 교육을 위해 공을 들였지만 이주해올 당시 그들이 꿈꾸었던 전원생활과 실제 농촌의 생활은 많은 차이가 있었다. 지방자치단체도 소모적인 사업에 무작정 지원만을 내세울 수 없기에 대상에 선별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고, 부정수급 차단을 위한 선별에 좀 더 주의를 기울이게 되었다.¹¹⁾ 지역 주민들의 생산 장려와 실질 귀농인 돕기에 주력하기 시작했고, 지원 제도를 개선해서 새로운 귀농 자원에 대한 지원을 늘여가는데 힘쓰기로 한 것이다.

반면 도시 경제는 산업의 발전으로 창업에 따른 성공의 기회가 줄어들었음을 알리는 보도가 있는가 하면, 경기침체에 따른 대기업의 생산 축소로 일자리를 잃고 있는 중장년층과 평균수명이 연장된 장수사회로 접어들면서 근로 가능한 연령이 늘어남에도 일자리를 구할 수 없는 노령인구도 문제가 되고 있다.¹²⁾ 국민연금 제도의 세대간 형평성 문제와 청년층과 중장년층 사이의 일자리 양극화 현상에 따른 세대갈등도 큰 쟁점이 될 전망이다.

3-3. 농촌지역 활성화 방안

도시지역의 인구가 농촌 지역으로 이주하는, 첫 번째 목적인 농업 생산은 많은 노동력을 필요로 한다. 하

11) 윤희일, <귀농, 귀촌 지원금 부정 수급자 징역 등 형사 처벌>, 경향신문, 2018.12.26., 검색 2019.02.17.

12) 박길성, <한국사회의 세대갈등 - 연금과 일자리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한국사회연구소, 한국사회, 제12집 1호, pp3-25., 2011.

지만 같은 생산물을 두고도 품질의 개선과 판로의 개척등에 의해 높은 부가가치를 평가 받을 수 있는 파생 서비스의 중요성은 더욱 부각되고 있다. 이에 대한 방안으로 미래 산업으로써, 6차산업을 통한 농업으로의 화귀와 접목이 가능한 서비스업들이 이미 많이 언급되고 있다.

사회적 농업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고령농조합법인, '양평원조외갓집체험마을'에서는 마을 주민들이 각자의 생업인 농업을 영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쌀을 생산하는 주력의 벼농사와 밭농사를 통한 각종 작물들의 수확까지 생활 모습은 여느 농촌과 다를바 없다. 하지만 이들의 농가 생산물들은 농산물의 가격을 저평가 받는 중간도매인의 구매와 같은 관행을 피해서 체험사업을 통한 방문객들의 소진으로 제거격을 확보할 수 있었다. 직접 판매 방식이 아니더라도 방문객의 식사에 사용되는 쌀을 조합원들이 직접 생산한 쌀을 구매하든 사용하거나 여러 가지 식재료로 사용되는 농산물 또한 직접 재배한 밭작물을 조합에서 가치를 인정해 구매 이용한다. 이러한 방식은 생산자에게는 더 큰 수익을 주고, 소비하는 방문객들에게는 농가에서 직접 재배한 식재료를 사용한 우리먹거리를 맛볼 수 있다는 신뢰감을 더해준다. 도심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노령인구의 근로 문제도 이곳에서는 예외가 된다. 자신의 체력이 허락하는 한 누구에게도 간섭 받지 않고 일할 수 있다는 것은 최근 대두 되고있는 사회문제에서 예외라 할 수 있는 큰 혜택이라 할 수 있다.

4. 결론

본 연구는 사회적 농업을 중심으로 체험마을 공동체를 운영하고 있는 경기도 양평군 청운면의 고령농조합법인, '양평원조외갓집체험마을'의 운영 경험을 토대로 농촌에서의 6차산업을 통한 새로운 생산 프로세스가 현실화 되고 있는 모습을 확인했고, 이를 통해 필요한 전문 인력의 수요를 예측하고, 전통적 구매, 판매 방식이 아닌 체험마을 소비재로서의 농업 생산물의 새로운 판로를 보기도 했다. 또 이러한 방식은 체험마을 방문객들에게 우리먹거리를 사용한다는 또다른 신뢰감을 더해준다는 부가 효과가 발생하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처럼 생산, 서비스, 소비의 순환구조를 갖춰야만 지속적 방문객을 유도할 수 있고, 이에 따른 인력의 필요성, 즉 노동인구의 필요성 또한 앞의 서비스에 따라 함께 순환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미 노령인구 비율이 많은 지금의 사회적 농업 공동체 내에서도 점점 분야별 전문인력이 필요함을 인식하고, 대책을 마

련하기 위해 노력은 하고 있지만 새로운 세대의 유입이 없어 그들로서도 별다른 대안 없이 손을 놓고 있는 실정임을 알 수 있다.

실제 국내에서는 이미 많은 체험마을 사업들이 진행중이지만 알려진 바, 고령농조합법인, '양평원조외갓집체험마을'의 경우처럼 양평군, 지방자치단체에서 인정하고 집계를 지속하는 사회적 농업의 공동체는 보기 힘들 뿐더러, 지속적인 방문객의 유입과 높은 생산성, 지역 고용의 효과를 거두는 경우 또한 드물다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사회적 농업의 활성화를 모델로 필요한 전문인력을 확인하고,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적절한 정책 수립과 홍보가 수립되어 농촌 인구의 유입으로 이어지도록 유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쉽지 않은 일이지만 본 연구의 실모델로 언급한 고령농조합법인, '양평원조외갓집체험마을'의 경우처럼 사회적 농업으로서 성공했다 볼 수 있는 공동체를 확인할 수 있었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이로 인해 농촌 지역에서도 자족기능을 갖출 수 있다는 방법을 제안함으로써 큰 효과를 볼 수 있을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 농촌지역의 자족기능 강화를 통한 인구의 유입과 생산성의 증대는 좀 더 연구를 확장해 객관적 자료를 수집할 필요성을 느끼고, 우리 사회가 꼭 해결해야 할 인구의 도시집중에 따른 농촌의 공동화 현상에 대해서는 좀 더 깊은 연구가 필요해 보이지만 사례를 통한 자료의 지속적 수집과 적극적 활용이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될것이라 기대한다.

참고문헌

1. 민성희, 변필성, 김선희 외, 인구 및 국토 공간구조 변화 전망과 대응방향, 국토연구원, 2017
2. 박길성, 한국사회의 세대갈등 -연금과 일자리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한국사회연구소, 한국사회, 2011., 제12집 1호
3. 이승환, 홍연웅, 농특산물 포장디자인에 대한 농업인 의식 분석, 한국디자인문화학회, 2018. 24권, 3호
4. 황재홍, 거제시 '알로에팜영농조합법인', 2018농촌융복합산업 우수사례 경진대회 장려수상, 경상남도농업자원관리원 2018.
5. 김종훈, 인구는 줄고 도시집중은 가속, 국토 인구

- 불균형 갈수록 심화, 경향신문, 2018.11.21.
6. 박정민, 체험 위주 ‘농촌관광’한계 고급화, 콘텐츠 다양화로 도약해야, 문화일보, 2017.12.01.
 7. 박중현, 초등생 학부모 “아이숙제 돕느라 인터넷 해매요”, 동아일보, 2000.06.27.
 8. 신민정, 사고 났다 하면 일단 ‘금지’부터 하고 보는 교육부, 한겨레신문, 2018.12.20.
 9. 경인지방통계청 kostat.go.kr
 10. 고론영농조합법인 www.sinronlee.com
 11. 국가통계포털 www.kosis.kr
 11. 양평군청 www.ye21.net
 12. 통계청 kostat.go.kr